

무안 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확정

교육부 4차 중앙투자심사 통과...440억 투입

28학급 규모 오는 2026년 3월 개교 목표 예정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마침내 고등학교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10월 27일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440억원이 투입되는 28학급 규모의 (가정)오룡고등학교 신설을 승인했다.

오룡고등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무안군 일로읍 남악신도시 오룡2지구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로써 남악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남악신도시가 명실상부하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넘쳐나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오룡고등학교 신설 확정에는 무안지역의 민관·평이 하나되어 이루어 낸 숙원사업 해결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산 무안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의 열정이 난관을 뚫고 교육부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무안군과 전남도교육청은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내 9.826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배치와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오룡신도시 1지구에 이어 2지구도 2026년까지 아파트가 준공되면 1,000여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가뜰이나 과밀인 남악고등학교 하나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도 남악신도시에 거주하는 수백명의 고등학생이 목포와 무안읍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등 관련기관은 전남지역이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라 고등학교 신설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등학교가 폐교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육부는 전남지역에 다른 고등학교의 폐교 조건 없이 오룡고등학교 신설을 승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룡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1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무안군은 향후 10년동안 해마다 10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무안군은 지난 4월 군민서명운동을 통

해 36,179명의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한데 이어 김산 군수의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오룡고 신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룡고 신설의 결정적인 역할은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냈다.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긴밀한 협조로 오룡고등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해 그동안 오룡고 신설에 부정적이던 교육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최근 서삼석 국회의원과 김산 무안군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소비촉진운동의 하나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갖는 자리에서 교육부의 4차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오룡고 신설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서삼석 국회의원이 곧바로 대통령실과 연결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자 지난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인 오룡고 신설을 누구보다도 환영한다"면서 "교육받기 좋은 도시, 젊은이가 넘쳐나는 무안 실현과 모든 분야에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오룡고등학교 신설로 원거리 통학의 불편이 해소될 기대한다"면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군민 심폐소생술·AED 사용방법 교육

심정지 등 응급상황 대비 만전

영암군 군민안전과와 영암군 전문의용소방대는 10월 25일 영암읍사무소에서 영암군민 및 직원과 이장단 40여명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최근 개정된 CPR매뉴얼로 진행됐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응급상황시 CPR사용과 AED사용방법숙지 등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영암군의 11개 읍면에서 순회진행되며, 영암군은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특성상 심정지 등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군민 생명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암군 전문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윤희호는 "실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응급현장에서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2022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함평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3,87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함평군청 누리집,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https://kras.go.kr>)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서면(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며,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7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장정진 민원봉사실장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2023년산 첫 '햇김' 위판 시작

신안군은 지난 10월 25일 겨울철 대표 수산물이자 별미인 '23년산 첫 햇김' 위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판은 압해읍 송공리 물김 위판장에서 이루어졌으며 15여가가 참여하여 68톤을 거래, 1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올해 첫 생산된 물김은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돌김으로 곱창처럼 길쭉한 구불구불하다 하여 일명 『곱창김』이라 불리고 있다.

맛과 향은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쏠리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활한 청정갯벌에서 지주항목을 세워 민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김밭을 햇빛에 자동 노출하는 옛 전통방식의 지주식 김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시식, 생산하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대양산단(주), 특수목적법인(SPC) 해산 완료

대양산단 조성·분양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설립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주)가 청산 절차에 앞서 해산했다.

지난 2012년 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목포대양산단(주)는 올해 4월 분양계약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출금 만기 상환 등 법인 목적을 최종 달성했다.

이에 목포대양산단(주)는 지난 25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다. 법인 해산으로 상법 제 531조에 따라 법인 청산인에 최창호 전 대표 이사를 선임했다.

목포대양산단(주)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법인 해산 사실을 신문과 법인 홈페이지 공고한다. 이해관계(소송) 등 제반 사항이 종결되면 법인 청산은 최종 마무리된다.

지난 2016년 준공된 대양산단은 현재 분양률 96.37%를 기록 중이며 그동안 8천여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해 146개 기업이 입주했고 1,2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김 가공업체가 집중 입주하고, 앞으로



목포 대양산단 전경

수산물식품수출단지 조성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물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대양산단(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채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